



[시장동향] 英 낙농업계, 동물건강복지 문제 지적한 BBC에 반박

- 낙농업계의 높은 동물복지 기준 및 낙농가들의 노력 강조



영국 BBC가 젓소와 송아지 복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낙농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BBC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파노라마’를 통해 웨일즈 지역 목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를 보도하며,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분리되는 송아지와 젓소의 절뚝거림 사례를 소개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수의사는 영국내 30% 이상의 젓소가 절뚝거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낙농가협회(RABDF)는 선정적 보도를 통해 극히 소수 낙농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하며 영국 낙농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젓소의 절뚝거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낙농가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거나 수익이 적다는 점이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과소평가되는 우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낙농산업은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있음은 물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필수 식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 farminguk.com, 2월 15일자 >

[낙농경영] 필리핀-카타르 유업체, 6천억원 규모 통합 낙농 시설 건립 협력

- 원유생산량 증가로 국내 자급률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기대



필리핀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카타르 유가공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섰다.

최근 필리핀 농업부와 통상산업부는 카타르 유가공업체와 협력해 5억 달러(약 6천억원) 규모의 통합 낙농 시설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필리핀의 원유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 대비 자급률이 낮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협력을 통해 원유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고용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2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